**부 록**

**● 우리 동네 답사하기**

 우리는 어느 곳을 여행하려 할 때, 그 곳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봐야하는지 또는 무엇을 체험해야 하는지 등 그곳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한다.

 짧은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가고자 하는 지역을 열심히 조사한다. 그러나 예전부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리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터를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 동네를 더 자세히, 더 오래 바라보는 것이 그 시작이다. 때로는 이방인의 눈으로 우리 동네를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리 조사를 해 보자. 그리고 우리 동네를 답사해 보자.

**1. 조사 지역 및 주제 신청하기**

 지리 조사의 시작은 장소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 소개하기’와 같이 특정 장소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지리 조사도 좋고, ‘우리 동네에 무더위 쉼터를 세운다면? 또는 우리 동네는 안전한가?’, ‘우리 동네에 OOO이 생기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등과 같은 특정한 질문 또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다.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주제로 삼는 것도 좋다. 다만 주제는 구체적으로 정하자. 우리 동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 행정 구역으로 정할 것인지, 학교 혹은 집으로부터 주변 어디까지라고 정해도 좋다.

가. 윤리적인 답사와 지리 조사 활동을 위하여

 생산지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 무역, 여행지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정 여행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착한, 윤리적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불리기도 한다. 답사나 지리 조사 활동 또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제와 장소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답사를 가는 모든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한다.

CHECK LIST

- 우리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활동이 개인의 사생활, 안전, 인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 우리의 활동은 지역의 법률이나 문화, 예절을 존중하고 있는가?

- 우리의 활동은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우리의 이익인가? 지역 사회의 이익인가?

- 우리는 조사자, 답사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 가?

- 우리의 활동은 측정과 실험 등의 이유로 자연이나 문화재를 손상하지 않는가?

- 우리의 예상과 달리 진행된다고, 조사나 답사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지는 않는가?

나. 일상에서 답사 즐기기

 지리 조사 활동은 주제와 장소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답사를 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있다.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네든, 학교든, 어떤 장소에 서 있다. 일상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장소를 느끼고, 즐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터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상에서 그 곳을 답사하는 것은 어떨까 ?

- 익숙한 곳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의 눈으로 두리번거려 보자.

- 종이 지도든, 스마트기기의 인터넷 지도든 지도를 읽어 보자. 때로는 지도 없이 발길이 닿

 는 대로 거닐어 보자

-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 곳의 기념품을 사자.

-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찾아보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로, 글로 자랑해 보

 자.

- 여행 가이드가 된 것처럼 그 곳의 먹거리, 볼거리를 중심으로 여행 코스를 만들어 보자.

- 자신이 경험한 다른 곳과 비슷한 점을 찾아보고 다른 점을 찾아보자.

- 그 곳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자.

-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보자.

- 시청과 군청 같은 행정 기관에 들러보자. 지역 홍보 자료나 지도를 챙기자.

- 이벤트가 생기면 그 곳은 나만의 장소가 된다. 나만의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2. 사전 조사 및 답사 디자인하기**

 조사 지역과 주제가 정해졌으면, 주제에 맞는 자료(문헌, 영상, 통계 등)들은 무엇일까? 그 자료들은 일차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고민해야 한다. 자료들은 관공서, 기업, 관련 기관, 신문, 지도, 관련 서적 등에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는 시기가 오래된 자료도 있고, 주제와 맞지 않는 자료,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료는 답사(야외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얻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 새롭게 구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일까? 그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사 경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인터뷰나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면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질문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팀이라면 구성원 간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 통계 자료 구하기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국내 통계뿐만 아니라 국제 및 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몇몇 자료는 지도나 도표 등 시각화된 자료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산림청 등 중앙 행정 기관, 서울특별시청, 수원시청 등 지방 행정 기관,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연구 기관 등에서도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는 월별, 연도별 통계를 조사하여, 통계월보, 통계연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통계 자료를 구할 때 중요한 점은 통계 조사의 대상과 기간, 방법, 주요 용어 해설 등이 적힌 통계 메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리 조사 활동에 있어 적절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국가 통계 포털, 서울 통계

나. 설문지 작성하기

 다양한 조사 방법 중 설문 조사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조사가 가능하기에 질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 또한 익명으로 응답이 가능하고, 응답 시간이 여유로워서 자유롭게 심사 숙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 작성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문지를 작성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지, 결과를 어떻게 종합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고려한다. 응답 대상은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조사 목적에 적절한 표본인지 확인한다.

- 설문지의 앞부분에는 설문의 실시 목적,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개인 정보 처리 및 사적 비밀 보장 약속, 조사자의 소속과 연락처 등을 밝힌다. 또한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마움의 뜻을 표시한다.

- 질문을 만들 때는 “매우 나쁨 - 나쁨 - 보통 - 좋음 - 매우 좋음” 등과 같은 폐쇄형의 질문이 좋은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개방형의 질문이 좋은지를 고민하여 작성한다

- 질문은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적절한 설명 및 표현을 사용한다. 응답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지루하게 할 정도의 긴 질문은 피하고, 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도 좋지 않다.

- 질문은 응답자가 간편하게 대답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질문을 묶어서 배열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질문에서 전문적인 수준의 질문 순으로 배치한다.

-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응답 예시를 설문지에 표시한다.

- 응답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은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한다.

- 설문지 초안이 완성되면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다.

**3. 답사(야외 조사)하기**

 사전 조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 필요하지만 구하지 못한 자료 등은 동네를 답사하며 얻을 수 있다. 답사를 하기 전, 조사 항목을 다시 정리해 보고, 조사 방법과 답사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윤리적인 답사를 위해 방문하거나 만나야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미리 질문지를 전달하여 의미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답사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곳의 법률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인터뷰나 설문 조사, 사진 촬영, 녹음 등을 할 때는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 수칙을 잘 따르고,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답사 준비물

- 답사 노트와 펜

- 지도, 나침반

- 사진기와 녹음기

- 자, 스케일바

- 비상 물품

- 기타

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백지도 얻기

 원하는 지역의 백지도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토정보플랫폼은 국가 인터넷 지도로 국가 기본도와 연계, 공공 데이터 연계, 다국어 지원, 색각 이상자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형도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필요한 수치 지도를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그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백지도 만들기

**4. 자료 정리 및 지리적 시각화하기**

 사전 조사와 답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는 정리하고,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지리 조사인 만큼 지리 정보를 지도, 그래프, 도표 등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로 만들어 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몇몇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서는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시각화화면, 간편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지도집에 소개된 다양한 주제도를 만들어 보자.

가. 커뮤니티 매핑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은 크라우드(Crowd Mapping), 콜라보 매핑(Collaborative mapping)이라고도 부른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이 함께 지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종이 지도를 만드는 것도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인터넷 지도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함께 지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지도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커뮤니티 매핑의 장점은 특정 주제도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쉽게 배포와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실시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쉽게 추가 ․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대표적인 커뮤니티 매핑의 사례는 재해와 재난 지도이다. 예를 들어 지진 발생시, 개개인의 사람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하나의 인터넷 지도 위에 각종 상황을 기록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구호 단체 등은 그 지도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조치가 완료된 곳도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커뮤니티 매핑 주제로는 ‘우리들이 소개하는 학교 주변 맛집 지도’, ‘ 학교 주변 안전 지도’ 등이 있다.

- 지도 주제 선정(우리가, 우리만이 잘 만들 수 있는 주제를 정하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

 는 지도를 만들 수 있다.

- 자료 수집 방법, 시기, 지도에 매핑할 주요 내용 선정

- 인터넷 지도에 ‘새로운 나만의 지도’를 만들고, 조사원들은 지역을 조사하며 그 지도 위에

 조사 내용을 기록(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다니며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적는 것도 좋고, 우

 선 종이 백지도 위에 적고 실내에서 한번에 입력해도 좋다.)

- 지도 꾸미고, 배포

- 추가, 수정, 보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림> 신고 현황 지도

<그림> 안전신문고

**5. 성찰하기**

 지리 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연구를 성찰하는 것이다. 주제와 장소는 적절했는지, 윤리적인 조사를 했는지, 주제를 조사하면서 실수는 없었는지, 아쉬운 것은 없었는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없었는지, 결론은 타당한지 등을 되돌아 보자.

**● 그림 지도**

**<그림> 서울**

**<그림> 부산**

**<그림> 인천**

**<그림> 춘천**

**<그림> 전주**

**<그림> 경주**

**<그림> 제주**

**● 일반도**

**<그림> 일반도**

**● 지도 찾아보기**

**● 사진 출처**

**32쪽**

해인사 장경판전: 권태균

석굴암과 불국사: 권태균

종묘: 권태균

창덕궁: 문화재청

수원 화성: 권태균

**33쪽**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권태균

경주 역사 유적 지구: 문화재청

고구려 고분군: Roger Shepherd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연합뉴스

조선 왕릉: 권태균

한국의 역사 마을(하회 마을): 권태균

개성 역사 유적 지구: 이혜은

남한산성: 권태균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문화재청

**34쪽**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권태균

판소리: 문화재청

강릉 단오제: 문화재청

강강술래: 문화재청

남사당놀이: 문화재청

영산재: 문화재청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문화재청

처용무: 문화재청

가곡: 문화재청

제주 해녀 문화: 문화재청

대목장: 문화재청

매사냥: 권태균

줄타기: 문화재청

택견: 문화재청

한산 모시짜기: 권태균

아리랑: 문화재청

김장 문화: 권태균

농악: 문화재청

줄다리기: 문화재청

제주 해녀 문화: 문화재청

**35쪽**

훈민정음: 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문화재청

직지심체요절: 문화재청

승정원일기: 문화재청

조선왕조의궤: 문화재청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권태균

동의보감: 문화재청

일성록: 문화재청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문화재청

난중일기: 문화재청

새마을 운동 기록물: 문화재청

한국의 유교책판: 문화재청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문화재청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문화재청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문화재청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문화재청

**38쪽**

아라온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42쪽**

무궁화: 김원섭

**44쪽**

탕건봉: 안동립

삼형제굴바위: 안동립

닭바위: 안동립

한반도바위: 독도관리사무소

코끼리바위: 안동립

부채바위: 안동립

독립문바위: 안동립

**45쪽**

대한민국 땅끝 표석: 안동립

독도 등대와 태극기: 독도관리사무소

대한민국 영토 표석: 안동립

울릉도 도동 전망대에서 바라본 독도: 독도연구소

독도 한국령 표시: 독도관리사무소

독도 선착장: 안동립

독도 등대(좌): 경상북도청

독도 등대(우): 안동립

주민 숙소: 경상북도청

독도 경비대: 안동립

**61쪽**

경의선 도로 출입 시설: 통일부

개성 공단 전경: 통일부

동해선 도로 출입 시설: 통일부

도라산역: 통일부

**64쪽**

지리산: 김석용

대이작도: 한겨레신문

북한산: 김석용

고성 공룡 발자국: 김석용

**65쪽**

태백 일대에서 발견된 삼엽충 화석: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백두산 천지: 연합뉴스

울산 반구대 암각화: 김원섭

**66쪽**

고위 평탄면: 문영롱

침식 분지: 국립환경과학원

**67쪽**

타포니: 문영롱

애추: 문영롱

**68쪽**

선상지: 문영롱

자유 곡류 하천: 연합뉴스

감입 곡류 하천: 국립환경과학원

범람원: 김원섭

**69쪽**

하안 단구: 김석용

삼각주: 김석용

하중도: 김석용

**70쪽**

육계 사주: 김석용

해안 사구: 국립환경과학원

파식대: 김석용

갯벌: 국립환경과학원

**71쪽**

석호: 김석용

해빈: 김석용

해안 단구: 이한진

시 스택: 국립환경과학원

**72쪽**

용암 대지: 김석용

용암 동굴: 김석용

화구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종상 화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73쪽**

돌리네: 김석용

석회 동굴: 삼척시청

라피에: 국립환경과학원

주상 절리: 제주관광공사

**78쪽**

인셉티솔: 농촌진흥청

울티솔: 농촌진흥청

엔티솔: 농촌진흥청

알피솔: 농촌진흥청

**79쪽**

동백나무: 김석용

신갈나무: 국립생태원

대나무: 김석용

눈향나무: 김석용

**80쪽**

천연 보호 구역: 이미지클릭

국립 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81쪽**

람사르 습지: 김석용

국가 지질 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145쪽**

단독 주택: 지상현

다가구 주택: 지상현

농가 주택: 지상현

전원 주택: 지상현

다세대 주택: 지상현

연립 주택: 지상현

1970년대 건축된 아파트: 이한진

1980년대 건축된 아파트: 지상현

1990년대 건축된 아파트: 지상현

2000년대 주상 복합 아파트: 지상현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인쇄일** **2017년 12월**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최병남**

**발행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주 소**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전 화** **031-210-2600**

**팩 스** **031-210-2644**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http: //nationalatlas.ngii.go.kr**

**ISBN 978-89-93841-28-2**

**< 주의 사항 >**

**1. 본 간행물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탁을 받아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가**

 **수행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2. 본 내용의 무단 복제는 절대 금하며,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